

악취자동측정망 운영

- 사하구의 공단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장기적인 발생추이와 농도변화를 관찰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

1.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18년 1월~12월 (매시간자료)
- 조사지점 : 장림동측정소 (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옥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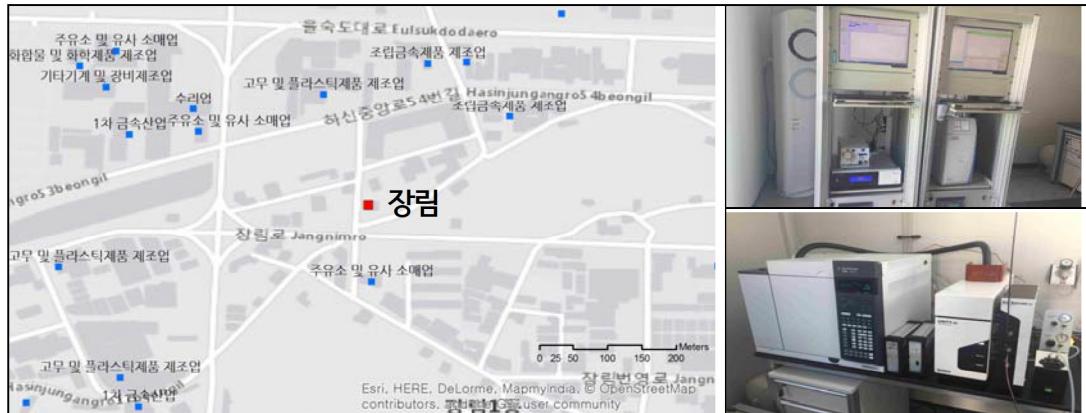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장림동 주변 주요 악취 배출원 및 악취측정기

2. 조사방법

- 20개 항목(암모니아 및 아민류 2, 알데하이드류 5, 황화합물류 4, VOCs 9)
- 항목별 분석방법

구 분	항목	분석방법
암모니아 및 아민류	암모니아, 트라이메틸아민	IC
알데하이드류	아세트알데하이드, 프로피온알데하이드, 뷰틸알데하이드, n-발레르알데하이드, i-발레르알데하이드	LC
황화합물류	황화수소, 메틸메르캅탄, 다이메틸설파이드,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	GC-PFPD
VOCs	톨루엔, 스타이렌, mp-자일렌, o-자일렌, 메틸에틸케톤, 메틸아이소뷰틸케톤, 뷰틸아세테이트, i-뷰틸알코올, 벤젠	GC-FID

3. 조사결과

○ 연간 가동율 현황

- 2018년 연간 가동율은 96.2-100%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.
- 2018년부터 학장동 전 항목 가동중단으로 장림동측정소만 가동하였음.

구 분	암모니아 및 아민류	알데하이드류	황화합물류	VOCs류
가동율(%)	96.2	100.0	99.7	98.7
정상가동	8,265	8,621	8,405	8,197
*유효총측정시간	8,593	8,621	8,430	8,302

* 유효총측정시간 : 2018년 전체 시간에서 천재지변, 정전, 점검 및 통신장애 등을 제외한 시간

○ 항목별 농도분포

- 주요 검출항목은 암모니아(99.9%), 아세트알데하이드(97.3%), 툴루엔(99.9%), m,p-자일렌(97.9%) 이었음.
- 최소감지농도 초과비율이 높은 항목은 트리메틸아민(51.3 %), 암모니아(32.5%)로 나타났음.
- 전년도 연평균 농도 대비 황화합물류는 감소하였고 그 외 항목은 다소 증가하였음.

표 1. 2018년 지점별 농도분포

		기타지역 배출허용 기준(ppb)	1)최소감지 농도(ppb)	검출빈도 (%)	최소감지 초과빈도 (%)	2018년 평균(ppb)	2017년 평균(ppb)
암모니아 아민	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	1000 5	100 0.1	99.9 52.0	32.5 51.3	85.707 1.682	29.895 0.543
	아세트 프로피온	5 50	2.0 2.0	97.3 10.5	17.1 0.0	1.387 0.014	3.334 0.165
알데하이드류	부틴 n-밸레르 I-밸레르	29 9 3	0.3 0.7 0.2	24.1 6.8 44.4	1.2 0.0 0.7	0.040 0.007 0.051	0.014 0.004 0.053
황화합물류	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	20 2 10 9	0.5 0.1 0.1 0.3	12.0 0.0 0.1 0.0	8.0 0.0 0.0 0.0	0.402 0.000 0.000 0.000	0.609 0.000 0.001 0.000
VOCs	톨루엔 스테이렌 m-자일렌 p-자일렌 o-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i-뷰틸알콜 벤젠	10000 400 41 1000 380 13000 1000 1000 900 2700	900 30 97.9 58 48.0 440 200 8 10 1.44	99.9 59.6 97.9 97.9 43.9 0.0 39.9 51.5 6.6 72.3	0.0 0.0 0.0 0.0 0.0 0.0 0.0 0.0 0.2 0.0	5.756 0.386 2.064 2.064 0.380 0.770 0.234 0.379 0.113 0.472	6.432 0.107 1.078 1.078 0.650 0.497 0.245 0.414 0.011 0.373

1) 후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, 출처: 2012 악취관리편람(환경부)

2) 대기환경기준

○ 항목별 기여율

- 악취활성값(개별물질농도/개별물질최소감지농도)과 총악취활성값(악취활성값의 합)을 활용하여 물질별 기여율 산정
- 트리메틸아민이 45.9%로 가장 높았고 암모니아 20.5%, 아세트알데하이드 17.6%의 순이며 그 외 물질들은 낮았음.
- 트리메틸아민은 봄과 가을철,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겨울에 기여율 증가, 암모니아는 연간 비슷한 수준 유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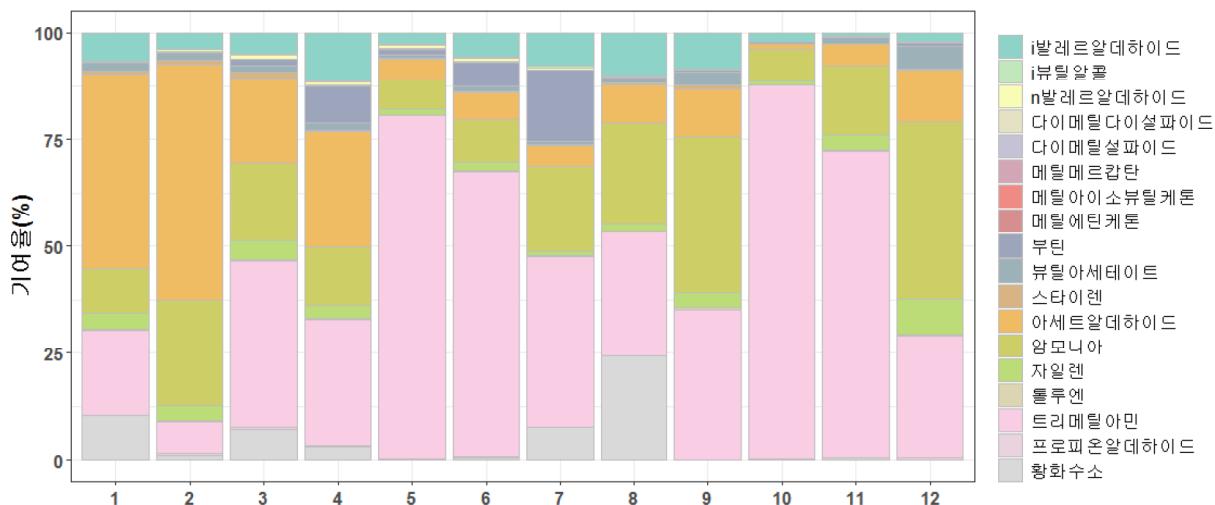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항목별 기여율 분포

○ 항목별 악취강도 분포

- 물질별 악취강도 환산식(Nagata, 2003)을 적용하여 악취강도 산정
- 트리메틸아민 ‘보통취기’ 이상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, 황화수소는 ‘감지취기’ 이상, 그 외 주요물질들은 감지취기 보다 낮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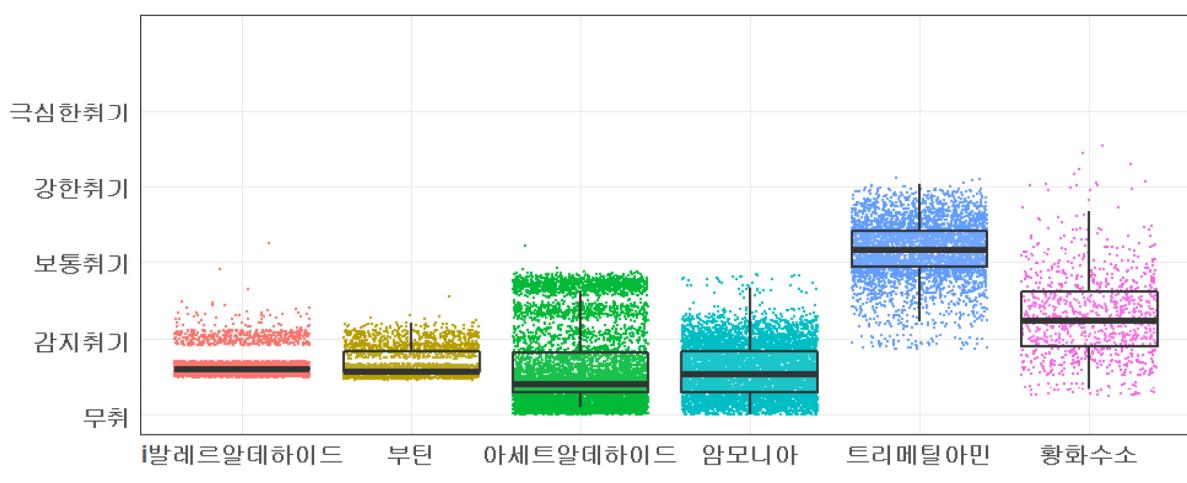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항목별 악취강도 분포

○ 풍향별 악취강도

- 트리메틸아민, 황화수소의 풍향별 악취강도 분포 산정
- 트리메틸아민은 북서풍에서 악취강도 최고, 북서-서남서풍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.
- 황화수소는 북에서 악취강도 최고, 북서-서남서, 남남동풍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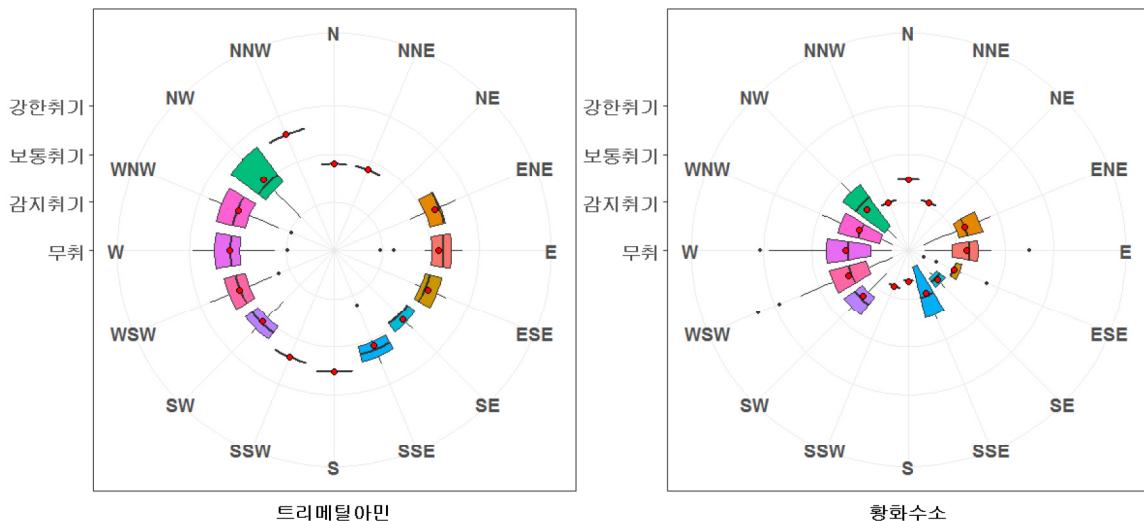


그림 4. 트리메틸아민, 황화수소 풍향별 악취강도

○ 결론

- 주요 검출항목 암모니아, 아세트알데하이드, 톨루엔, m,p-자일렌 중 최소감지농도 초과비율이 높은 항목은 트리메틸아민, 암모니아였음.
- 최소감지농도 대비 기여율은 트리메틸아민, 암모니아 순으로 높았음.
- 악취강도가 높은 항목은 트리메틸아민(생선썩는 냄새), 황화수소(달걀썩는 냄새)로 나타남.
- 트리메틸아민은 북서-서남서풍에서 황화수소는 북서-서남서, 남남동풍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음.

4. 활용방안

- 사하구의 공단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장기적인 발생추이와 농도변화를 관찰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

5. 기대효과

- 사하구 공단지역의 악취 저감과 개선을 위한 자료 제공으로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